

고향서 첫 선...생명성 담보 강력한 물살 투영

CULTURE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대학 진학 후 43년 만에 고향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전남여고를 졸업 후 홍익대에 진학, 졸업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살았다. 그에게 서울과 인천은 객지다. 그러나 그 객지가 고향에서의 삶보다 더 오랫동안 머문 곳이 됐다. 고향은 광주이지만 서울을 위시로 수도권에서 작가로서 출근 활동을 펼쳐왔다. 남편 역시 고향이 광주여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하지만 전시만큼은 좀처럼 고향과 연을 맺지 못했으나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대학졸업 후 프로작가로 활동하는 건 이력 속 고향에서 첫 전시를 여는 김혜선 작가가 그다. 그것도 그는 중앙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일대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성장했다. 고교 역시 전남여고를 나와 그 인근이 각별하다. 더욱이 전시를 여는 공간 또한 은암미술관이어서 그에게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은암미술관 재충기 관장과 인연이 닿았고, 해남 울돌목 해안을 추천해줘 자주 그곳에 가서 파도를 관찰했다. 그러면서 작업 아이템이나 창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작가의 행보가 화폭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의 작품들은 울돌목의 생명성을 담보한 물살의 강력한 움직임을 간파해낸 것이다. 그냥 파도만 표현했다면 역동적 생명력을 읽기는 어려웠을 듯하다. 생명성을 담보한 물살의 움직임을 투영한 작품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아버지의 바다를 거닐었다’와 ‘장주지몽(莊周之夢)-BLUE’ 연작 등 총 45점이 이번 전시에 출품됐다. 전시는 스물다섯번째 개인전으로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고향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1층 전시장에는 어두운 블루톤의 작품들이 집중 배치됐고, 2층 전시장에는 치유와 명상적 시각



김혜선 작가 출향 43년만에 ‘고향가는 길’ 주제로
오늘부터 은암미술관서...‘장주지몽’ 연작 등 45점
어두운 블루톤 구사·치유 선사...나이프 활용 작업

작품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아버지의 바다를 거닐었다’ 앞에서 설명하며 포즈를 취한 김혜선 작가.

으로 접근한 작품을 배치했다.

그가 말하는 어두운 블루는 한이나 아픔을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는 색이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고향 광주가 5·18항쟁의 참화를 겪은 아픔이 있었지만 파도처럼 일어서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두운 블루를 생각했다. 여기다 바다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전라도의 색이 무엇일

까’ 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전시는 12·3비상계엄 때부터 올 3월 사이 작업했던 작품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이어 2층에는 그동안 펼쳐왔던 작품을 출품했다. 관람을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명상의 감각을 선사,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세상을 가려온 곳을 굽는 마음으로 나이프를 활용해 밀

었다. 그리고 색을 다소 빼 냈다. 작가의 삶과 회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도 배치해 뒀다.

작품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아버지의 바다를 거닐었다’를 작업할 때는 아버지의 바다가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라 생각했지만 녹록치 않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먼저였다는 점을 깨쳤다는 설명이다.

그가 이처럼 스토리 뿐만 아니라 기본기마저 탄탄한 이면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추상미술 운동인 초기 앵포르멜 추상에서 가학적인 화면에 앵포르멜 요소를 절충한 당사자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최종섭 화백(1938~1992)을 스승으로 모시고 미술공부를 했다. 추상미술의 결집체 역할을 했던 미술동인 ‘에뽀끄’ 멤버로 호남 추상화단에서 양수아와 강용은 화백에 이어 추상화화 2세대 작가로 꼽혔다. 그저 그런 작가가 아닌, 꽤 이름있는 작가로부터 미술의 기본기를 닦은 것이니 그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마르면 밀바닥이 모두 보이고 실리곤처럼 촉촉한 느낌이 드는 한편, 가격이 만만치 않은 네덜란드 수채 물감인 올드홀랜드(old holland)를 사용한다. 그가 색에 대해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양한 형태를 위해 물감을 쌓을 수 밖에 없다는 작가의 농도차로 만든 질감을 익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 작업을 할 때 드뷔시의 ‘달빛’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음악이 주는 색감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작가는 “내가 살던 곳이 은암미술관이 자리한 동네였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더 의미가 있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이프로 미는 작업이 힘들었다. 나이프로 미는 작업은 호흡이 중요하다. 내면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작업에 몰입해야 한다. 제 특징이 물감 성질을 잘 안다는 점이다. 층층이 색을 달리 구사해 나이프로 굽는다. 그렇게 해서 형태를 잡아간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5시.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악계 예비 마에스트라’...청소년 지휘자 무대에

‘국악계 마에스트라’를 꿈꾸는 지휘 인재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의 제142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라의 밤’이 오는 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17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국악 인재들의 등용문이자 국내 유수 콩쿠르 입상자들의 교류 장이 돼왔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 협연의 밤’ 공연의 하나로, 국악 전공 전문 지휘자를 꿈꾸는 7인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지난해 인기 지휘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김상욱 지휘자를 제외한 모든 객원지휘자들이 여성으로 구성된 점이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최은소 객원 꼬마 지휘자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

첫 번째 무대는 지난해 ‘청소년 협연의 밤’ 연주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김상욱 지휘자가 작곡한 ‘향해’를 김 지휘자의 지휘로 펼쳐 보인다.

새로운 탐험을 떠나는 선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외중에 겪었을 설렘, 긴장감,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경외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엿모리, 자진모리, 세마치 장단 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두 번째 무대부터는 여성 객원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잡는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박서빈



객원지휘자의 지휘 아래 청산별곡을 주제로 역동적인 선율이 일품인 ‘청산’을 비롯해 충남연정국악단 위촉곡이자 금강을 주제로 강 길이 품어온 오랜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낸 ‘역동의 강’을 연세대를 졸업한 진평(진유정)

객원지휘자의 무대로 꾸민다.

이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이후 가장 젊은 꼬마 여성 객원지휘자 김라원의 지휘로 각 지방의 아리랑을 한데 모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랩소디’를, 전북대를 졸업한 김소리 객원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아시안을 위한 ‘벳노레’를 들려준다.

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자 김성은 객원지휘자의 ‘춤추는 바다’로 국악관현악의 다채로운 장단과 선율을 감상한다.

끝으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위촉곡 ‘불의 춤’을 전남대를 졸업한 정윤혜 객원지휘자의 지휘로 선보이며 막을 내린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1만원. 문의 062-415-5403.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6건 선정

문학·시각·공연예술 3개 분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추진한 신규사업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에 광주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문학(2건), 시각예술(1건), 공연예술(3건) 분야에서 총 6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건은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지원한 4개의 집중지원사업 및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전문예술인 분야(문학·시각예술) 중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별됐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공모 대상으로 재단은 3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식 추천서를 제출했다.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광역문화재단이 발굴·지원한 예술작품을 위원회가 후속 지원하는 ‘지역·중앙연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사업이다. 지역 예술단체와 개인 예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앙 무대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는 ‘작품 및 활동 보고’, ‘수월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광주문화재단은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에 지원한 결과 광주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 총 6건이 선정됐다. 사진은 놀이패시명의 공연 모습.

‘비평·홍보·작품 및 단체운영(회계·정산, 재원조성 등) 전문가 자문’, ‘타 지역 공연장 및 예술단체 교류 활동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선정이 광주 예술인들이 전국 단위 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선정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감에, 지역 예술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조이현·추영우 풋풋한 로맨스...‘견우와 선녀’ 4.3% 출발

배우 조이현과 추영우의 풋풋한 호흡을 담아낸 첫사랑 로맨스 드라마 ‘견우와 선녀’가 시청률 4%대로 출발했다.

2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 처음 방송된 tvN 새 월화드라마 ‘견우와 선녀’ 첫 회 시청률은 4.3%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여고생 무당인 박성아(조이현)의 험난한 첫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이 그려졌다.

낮에는 평범한 학생으로, 밤에는 정체를 숨기고 무당으로 일하는 박성아는 자신의 이상형에 들어맞는 또래의 남자 배견우(추영우)를 범당에서 만나고, 그가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느낀다.

액운을 타고난 견우를 안타까워하던 중 그가 본인과 같은 학교로 전학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성아는 무당으로서 힘을 발휘해 액운을 막아주고 첫사랑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성아는 견우의 결을 땀뿜며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고, 용하기로 소문난 꽃도령의 부적도 구해오지만, 견우는 좀처럼 성아에게 결을 내주지 않는다.

‘견우와 선녀’는 첫 회부터 성적이 정반대인 두

고등학생의 풋풋한 로맨스를 빠른 호흡으로 풀어냈다. 첫눈에 반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건 능동적인 여자 주인공이 신선하게 느껴졌다는 시청평이 나왔다.

두 주연 배우의 연기 호흡도 돋보였다.

조이현은 성아의 귀엽고 통통 튀는 매력을, 추영우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은 견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100년 세월 담긴 ‘대나무 밥그릇’ 조망

비움박물관 기획전 8월 22일까지

광주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100년의 세월을 담다 오래된 대나무 밥그릇’이라는 주제로 한 여름기획전시를 17일 개막, 오는 8월 22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과 2~5층 상설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00여 년 전 여름날 일상에서 밥을 보관하고, 담았던 대나무 생활용품을 비롯해 대나무 밥그릇과 밥상, 밥바구니, 도시락 등 오롯이 대나무로만 만든 일상 생활용품이 출품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무더운 여름, 옛날 어머니들

이 가족이 먹을 밥을 쉬지 않도록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시렁에 걸어도 풍경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볼 수 있다. 낮에는 새참과 식사를 준비해 커다란 밥바구니에 담아 머리에 이고 한창 농사일 바쁜 논으로 날랐다. 가볍고, 통풍에 용이해 여름을 나는데 없이 좋은 그릇이었다.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우리 살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대나무 생활용품이 그것이다.

광주에서 유일한 사립 민속박물관인 비움박물관에서는 3만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들 중에서 계절마다 주제에 알맞는 전시품들을 선별해 1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영화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무더운 여름



여름기획전시 전경.

철을 맞아 바라만 보아도 시원한 대나무, 그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과 밥상, 밥바구니 등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백년의 세월을 머금고 있는 대나무의 빛깔, 색깔, 때깔의 아름다움과 쓰임새에 따라 닳고 닳은 실용성과 조형성 및 우리 조상들의 겸박한 정신도 숨어 있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